

觀光資源에 대한 地理的 研究動向

權 容 友* · 金 善 姬**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의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검토함으로써 관광자원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관광자원의 유형화와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로 내용상 관광자원의 개념과 범위, 기준설정을 토대로 한 관광자원 자체의 유형화와 그 지역적 분포특성에 근거한 공간적 유형화로 구분되어 발전하였다. 둘째, 관광현상을 유발시키고 관광목적지를 결정하는 배경으로서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 및 선호, 해석에 대한 행태론적 연구이다. 셋째, 최근에 활발한 연구를 보이고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 및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심리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동향을 들 수 있다. 종합검토 결과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그 공간적, 내용적 범위가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연구주제와 방법면에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계량적, 분석적 틀을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로 발전해 가고 있다.

主要語 : 觀光資源, 관광욕구, 관광행태, 공간선호, 관광동기

1. 序 論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관광은 일상적, 반복적 생활에서 변화를 찾으려는 인간욕구의 실현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지표공간의 다양성은 이러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본질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관광욕구는 관광대상의 설정과 관광행태 및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기초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만족되어지며(Mill and Morrison, 1985), 지표공간의 다양성은 지리학 교유의 관심 영역이므로 관광은 하나의 지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Robinson, 1975). 따라서 관광은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사업 등 제요소들 간의 시·공간적, 기능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체계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Leiper, 1991).

오늘날 관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관광구조는 물론 관광행태 등 전반적인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관광에 대한

이론적 연구 또한 그 어느때 보다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환경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관광지역의 제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지금까지 관광지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제 관광자원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초로 이해하고 관찰하는 현장교육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연구와 전문적인 해석,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관광자원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그 동향을 주제별로 세분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분석,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誠信女子大學校 地理學科 教授

** 誠信女子大學校 地理學科 講師

2) 研究方法 및 範圍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리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과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관광자원의 범위와 기준은 물론 관광자원을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의 범위가 넓어서 장별 특성에 따라 내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우선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에서 관광지가 관광자원에 의해 유인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광자원의 특성에 기초한 관광지의 공간적 유형화를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관광자원 연구의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지리학외의 분야에서 관광자원을 다루고 있는 논문을 포함시켰다.

3) 觀光資源의 構造

관광자원은 관광의 기본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어져 왔으나(津田昇, 1969; Robinson, 1976; Gunn, 1978; 李長春, 1983; 金正培·鄭承鎰, 1984; 金炳文, 1990),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적인 개념정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직접적인 요소로서 주자원을 칭하는 개념과 관광자원의 가치와 유인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반되는 제반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鄭泰鴻 등, 1993).

오늘날과 같은 대중관광시대에 있어서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자원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것은 현대 관광의 구조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광대상이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복합형 관광자원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시설(서비스 포함)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金太永, 1988).

결국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은 넓은 의미로 관광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광객의 관광의욕을 유발시키고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만한 가치가 있

는 유형·무형의 제관광대상을 말한다. 이것은 다양한 자연경관에서부터 풍속, 문화, 사적, 관광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의 물적, 인적, 문화·역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단일자원성보다는 복합적인 성향을 띤다(林漢洙 등, 1992).

Zimmerman은 “자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며, 인간의 욕구와 활동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여 자원창출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Peach and Constantin, 1972). 이는 자원의 상대적인 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자원 역시 관광객의 주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사물이 관광자원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모두가 관광자원이 될 수는 없다. 이는 관광자원이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대변천과 관광수요, 활동형태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없었던 자원도 대중관광의 보급과 교통 발달, 경제성장, 여가시간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으로 매력과 유인력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趙松彬, 1991). 또한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적절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며, 모든 자원이 그러하듯이 관광자원 역시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에 보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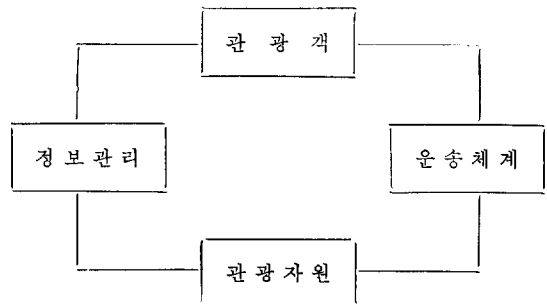


그림 1. 觀光客과 觀光資源의 誘引關係
자료: 孫大鉉, 1989

동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관광자원이 관광객을 유인하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나 목적에 따른 충족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金洪雲, 1988), 이러한 조건들은 관광자원의 평가 및 유형분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金成基(1988)는 관광자원의 충족조건으로 위락성, 관상성, 다양성, 계절성, 교육과 학술성, 역사성, 희소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 조건이 충족되면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의 정보기능과 이동수단이 결합되어 관광행위가 구체화된다(孫大鉉, 1989).

2. 類型化와 分布에 대한 論議

지역 또는 공간상에 다양한 형태로 부존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일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나아가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관광자원 연구의 가장 오래된 관심주제였으며, 관광지리적인 접근의 토대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이용되어 온 방법은 연구자가 다양한 관광자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원을 임의로 정의하고 분류하는 단순한 산술적 방법(arithmetic method)에 의존해 온 경향이 있다(Smith, 1983). 이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관광자원의 개념 및 유형화의 범위와 기준의 모호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대한 지리적 접근동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관광자원 자체의 유형화로 자원의 개념적 특성에 따른 정의와 기준, 범위설정에 대한 논의이며, 두 번째는 관광자원의 분포유형으로 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논의이다.

1) 概念的 特性에 따른 類型化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는 관광자원의 내용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우선 관광자원을 관광대상의 하

위개념으로 협의의 주자원으로 보려는 시도이다. 즉 관광자원을 관광시설과 구분하여 그 존재형태, 형성원인, 자원특성, 관광행동패턴, 자원의 이용 등을 기초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관광자원을 존재형태에 따라 유형관광자원과 무형관광자원으로 대별하고 거기에 세부항목을 설정한 시도이다(李長春, 1974; 國際觀光公社, 1979; 交通部, 1981; 韓國觀光公社, 1983). 둘째, 형성원인에 따라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으로 유형화한 시도이다(岡庭博, 1969; 末武直義, 1974; 金炳文, 1984). 셋째, 자원특성에 따라 자연적 관광자원과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등으로 유형화한 시도이다(津田昇, 1964; 金震燮, 1981).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일반화된 분류체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유형화에서 2차적 분류나 세부항목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넷째, 관광행동 패턴에 따른 유형화로 Gunn(1978)은 관광자원의 유형을 관광형태를 기초로 주유형 관광자원과 체재형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토지이용 단위별로 자연자원, 문화자원, 혼합형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섯째, 자원이용형태에 따라 동적 이용자원과 정적 이용자원으로 구분한 사례도 있다(金洪雲, 1986). 이 밖에도 伊藤郷平(1973)은 관광자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는 型的 분류를 시도하여 자연형, 명소·고적형, 온천형, 산악·고원스포츠형, 호안·해안스포츠형, 문화·교양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관광자원을 크게 관광대상에 포함시키므로써 시설, 교통, 사회구조 등이 결합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鈴木忠義, 1974; 前田勇, 1978; 岡本伸之, 1978; McIntosh, 1986). 관광대상은 관광객의 욕구를 환기시킨다든가, 충족시키는 목적물로서 관광행동을 유인하는 작용을 갖는다(차복재, 1982). Robinson(1976)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관광자원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관광개발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광자원의 유형을 기후, 경관, 위락시설, 역사·문화유적, 접근성, 숙박시설 등을 들어 관광시설을 관광자원에 포함시키므로써 관광자원의 범위를 확

대 해석하였다. 또한 金成基(1988)는 관광자원을 크게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노동력)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자원은 다시 직접 관광대상이 되는 유인물(attraction)과 이를 보조하는 보조유인물(sub-attraction), 그리고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시설(support facilities), 관광대상 지역의 모든 시설을 지원하는 각종 기반시설(infrastructure)로 나누어 관광자원을 관광대상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이제 관광자원의 유형화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관광대상이 자연 관광자원에 편중되었던 반면에 오늘날은 인문관광자원은 물론 인공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숙박시설, 교통 및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이 관광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개발 및 창조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원의 이용면에서도 보다 참여적이고 활동적인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도 그 내용적 범위의 확대는 물론 각 자원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시설자원의 적정배치와 수용한계의 정확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 空間的 分布特性에 따른 類型化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대한 또다른 지리학적 접근동향은 관광자원을 하나의 단위관광지역인 관광지에 포함시키므로써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관광지를 계층화,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Ishii(1979)¹⁾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지의 구조적 특성과 계층화를 위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단일한 지표보다는 2~3개의 지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관광지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이 관광지의 기능과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Clawson(1960)은 관광자원을 넓은 의미에서 레크리에이션 자원으로 보고 그 분류기준으로 입지, 이용시기, 활동유형, 지역규모, 관리유형,

이용정도 등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관광지역을 이용자중심형, 중간형, 자원중심형으로 분류함으로써 관광자원을 공간적인 연속체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Davis(1967)는 관광지의 기능적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산업 등 두가지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능지수(functional index)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Gearing, Sward and Var(1974) 등도 관광자원과 산업의 두가지 변수를 통해 관광지역의 순위와 계층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개별 관광자원과 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 동시에 개별지역의 자원과 산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역별 관광 매력성 지수(attractive index)를 산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지를 유형화하고 있다. Smith(1987; 1989)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의 지역적 분포패턴을 기초로 관광지역의 분류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관광지역은 관광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능지역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관광지역의 구분단위는 분할된 관광공간이므로 구분체계는 각 개별단위로부터 시작하는 종합적 지역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관광자원이나 산업 등이 집합적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분석적 지역화를 통한 지역체계의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木内信藏(1942)은 일찌기 온천취락을 지형, 위치, 규모, 내탕, 외탕별로 연구하여 가옥형, 이용객형, 계절형으로 유형화된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野本屍史(1962)는 관광지에 유치된 관광객을 천명 기준으로 그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된 지역수에 따라 근접적, 지방적, 국내적, 국제적 관광지로 구분하고 그 외 시간거리, 관광객 동태 등을 지표로 관광지를 유형화하였다. 鈴木忠義(1975)도 관광자원의 견인력을 구하고 거리를 지표로 관광지의 세력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除野信道(1975)는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관광대상물의 공간적 배치가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도심의 자본집약형 자원, 번두리의 중앙위치형 자원, 원거리의 자연집약형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姜大玄(1963)이 지리

산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특성을 밝히는 연구에서 지리산의 관광자원성을 응대한 산세, 다양한 동식물, 사찰과 문화재, 등산과 스포츠, 휴양기능 등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元學喜(1984)는 수안보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온천취락의 지역구조와 관광 관련업체의 역사적 배경과 온천객의 특성, 관광자원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金相勳(1985)은 온양, 수안보, 백암, 부곡온천 등을 중심으로 온천관광지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그 역사, 기능, 교통, 이용객의 지역적 분포 등을 비교연구 한 바 있다. 金炳文(1986)은 우리나라 전국을 단위로 관광자원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파악을 위하여 평균치, 표준편차, 입지계수, 변동계수 등에 의한 지역별 특화도를 조사함으로써 전국 관광지의 지역성을 밝히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金在寬(1989)은 영남권의 관광지역을 15개 관광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관광자원의 특성과 분포정도를 파악하고자 관광자원의 권역별 특화도를 기초로 관광자원 중심의 권역을 설정하였다. 즉 관광자원의 일반적인 분류체계의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관광자원의 분포정도에 따라 영남권의 관광권을 자연경승형, 문화유적형, 사회산업형, 종합관광형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黃昌潤(1992)은 요인분석기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전국 관광자원의 지역적 분포와 분포패턴을 알기 위해 시·군단위 지역별로 요인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사회문화적 자원형, 전통사회적 자원형, 역사문화, 종합위락적 자원형, 자연명소적 자원형, 위락공간 및 시설 자원형, 산업 및 주요관광 자원형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관광자원의 지역별 분포체계가 복잡적이라기보다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 認知·選好 및 解釋에 대한 論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변화의 욕구가 관광동기로 이어져 관광활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서 개인의 관광행동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하나의 의사결정자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광욕구의 유발과 동기부여, 그리고 관광목적지의 선택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관광행위는 시·공간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관광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부여를 전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관광환경에 대한 개인의 내부적, 심리적 요인으로서 지각, 학습, 성격, 동기, 태도(孫大鉉·張秉權, 1991) 등과 비용, 시간, 정보 등 실질적으로 관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인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은 관광객의 인지체계 속에서 관광자원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선호도로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자원과 관광공간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인지는 사람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서 관광의 억제요인 또는 촉진요인이 되기도 하며, 이는 곧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각(perception)은 우리가 주변 세계(공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대상, 사상, 행동 등이 지각을 통해 인지하게 됨으로써 지각과정은 고도의 선택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간(환경)에 대한 선택적 관심과 이해가 개인의 선택적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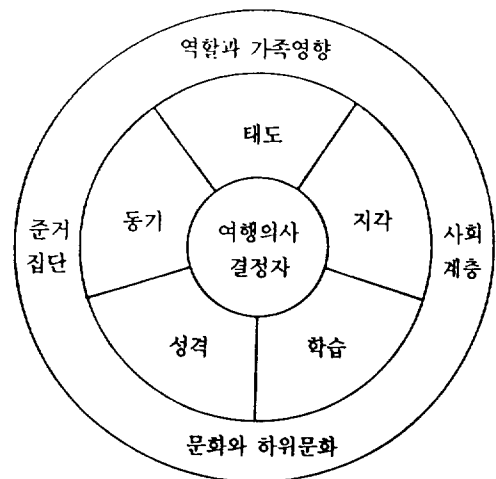


그림 2. 個人的 觀光行動에 影響을 주는 變數
자료 : Mayo and Jarvis,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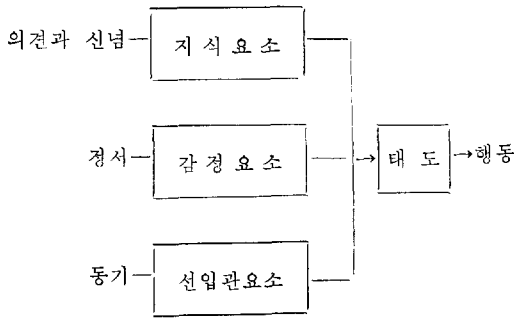


그림 3. 態度的 構成要素
자료 : Resenberg, 1960

으로 체계화되고 이것은 개인의 독특한 태도로 가시화되어 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각은 인지(cognition), 이미지(image), 태도(attitude)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인지는 외부적 환경과 인간의 행태를 연결지어 주는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서 공간(환경)을 알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각은 인지의 부분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임승빈, 1988). 이미지는 개인의 인지과정에서 선택적인 기억을 도와주는 여과장치로서, 태도는 인지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이들은 공간 선호(preference)의 매우 중요한 예표(predictor)가 된다.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행태론적 연구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각, 인지, 인지지도(mental map), 관광행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Emrys and John, 1977), 방법면에서 대부분 정량적,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한 개인의 관광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인간의 행태와 관광공간의 다양한 인자를 몇 개의 변수를 기초로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반성도 일고 있으며, 개인의 관광행태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수에 의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관광의 공간적 패턴에 차이가 나타난다(Pearce, 1987). 따라서 관련 변수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지녀야 한다(Smith, 1983).

Mayo(1975)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미국 24개 지역 가운데 8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각 관광지에 대한 속성의 중요도, 관광지간의 유사정도,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 등을 밝히고 있다. 관광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결정 기준은 혼잡도와 자연경관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McIntyre(1989)는 오스트레일리아 Cooloola 국립공원의 야영객을 대상으로 캠프장의 선택과 이용간의 관계를 인자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즉 위탁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와 위탁활동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조사하였으며, 캠프활동의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매력성(attraction), 자기표현성(self-expression), 중심성(centrality)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행태론적 접근은 1960년대 공간선택에 대한 선호와 환경인지, 주관적 해석을 중요시한 행태지리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金松美, 1991). 관광환경에 대한 지각, 인지, 선호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관광심리학, 관광행태학에서 처음 다루어졌으며, 관광지리학 분야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朴宣姬·秦熙成(1985)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사례지역으로 관광자원을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분류하여 표준편차와 인자분석을 통한 각 관광자원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유형별 공간으로 분류함으로써 관광지의 자원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연자원의 공간에는 산정, 산록, 계곡, 삼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자원의 공간으로서 사찰의 선호를 강조하고 있다. 朴宣姬(1987)는 부여공주권의 문화적, 자연적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관광대상의 공간이미지 구조를 인자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관광자원의 매력과 시각적 선호도를 계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관광지의 개발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尹吉鎭(1990)은 서울, 대전, 대구지역의 도시민을 잠재적인 관광객으로 간주하여 13개의 관광속성을 기초로 관광목적지로서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지 및 선호구조를 조사하였다. 10개의 국립공원

을 대상으로 다차원척도법(multi-demensional scaling)을 이용하여 관광목적지에 대한 세 지역간의 차이를 구명한 결과 관광속성, 상대적 선호평가, 그룹별 인지와 선호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韓炳善(1990)은 9개의 온천관광지를 사례로 14개의 속성변수를 이용, 관광지의 이미지구조와 선호행태를 파악하고 관광속성별로 인자분석을 통해 관광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吳南三(1991)은 제주도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주민의 관광행태를 관광동기, 행동, 만족, 의식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 된다는 전제하에 관광지 주민의 관광동기, 공간행태, 관광의식에 대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관광행태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河憲國 등(1991)은 경주국립공원을 사례지역으로 관광지에 대한 경관선호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선호하는 경관은 문화재와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룬 곳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응집력, 복잡성, 신비성 등이 영향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관광자원 또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선호는 관광객의 학습과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지를 통한 관광 만족도는 다음 관광활동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지리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관광자원에 대한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권동희(1991)는 지형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형관광자원을 산악, 하천, 해안, 온천, 동굴, 지질, 인공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산악관광자원과 하천관광자원의 이용실태와 지형학적인 재해석을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鄭泰鴻 등(1993)은 한국의 자연관광자원을 산악, 하천, 해안, 온천, 동굴, 지질, 인공지형, 식생, 기상관광 등 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관광자원에 대해서 일반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리학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사진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開發·計劃 및 影響에 대한 論議

관광개발은 지역개발의 일부분으로 지역성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최근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관광분야의 폭발적인 수요증대와 함께 관광개발은 그 내용이나 구조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많은 국가에서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력 신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개발계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빠짐없이 관광개발이 포함되고 있다(金料哲, 1992).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늘어날 관광수요와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변화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구조면에서도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본다(金太永, 1988).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은 경제적 우위성이 강조되면서 대량생산을 위한 단위관광단지 중심의 거점개발방식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관광공간의 불균형과 관광지의 공간적, 구조적 동질화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金善姬, 1992).

관광자원 개발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가치상실이나 훼손을 최소화하여 경관미를 보전하고 관광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다(韓國觀光開發研究院, 1990). 즉 관광개발이 경제적 편익 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조화를 이룰때 개발의 효용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때 관광개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목표가 정립되어야 하며, 관광공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요구된다.

한편 관광개발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 하겠으며, 지금까지 이

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종래 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연구가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여 온 반면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개발의 경제적 영향이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지나친 환상만을 심어주고 지역의 실질적 경제편익의 기대치에는 미흡했음을 지적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을 뿐 아니라(金思憲, 1982; 丁碩重, 1987; 전경수, 1987)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영향연구가 시도되어 관광지리학의 관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 概念規定에 대한 論議

관광개발은 개발주체, 대상지역, 시장규모, 자원성 등에 따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왔으나 그 차는 근소하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에서 크게 부각되어온 개념은 관광자원개발, 관광지개발, 관광시설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흔히 혼용되어 왔다. 즉 관광지와 관광시설개발은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소비 증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鈴木忠義, 1974)이라는 점에서 관광자원개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개발을 관광에 관한 모든 개발행위를 총칭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관광자원개발은 물론 정책, 시설, 자원보호, 교통수단의 정비, 관광업 개발 등이 포함되며, 관광자원이 지닌 특성적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개발로서 관광자원개발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李長春, 1983; 李根, 1990; 金正培·鄭承鎰, 1984). 즉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객이 관광동기와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인 유형·무형의 관광대상에 대해 인간의 지혜와 노력, 자본을 투입하여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관광효과를 높이고 관광가치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관광개발이 적극적

이고 인공적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이 자원의 특성개발로부터 출발되고 종래 자원이용을 위한 시설개발에서 관광단지와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 및 유인력을 갖기 위한 시설개발이 필수요건임을 주지할 때 관광자원개발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관광개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도 관광지과 관광시장과의 연계속에서 그 기능분석을 통하여 관광지가 갖는 개성을 설명하여야 하며(金思永, 1991), 지역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有末武夫, 1970). 더우기 관광개발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은 단순히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 보다는 지역환경과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開發·計劃 및 影響에 대한 論議

자원개발은 급세기 인류의 공통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내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가운데 개발잠재력이 큰 자원을 평가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역개발의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金善姬, 1988).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주관이나 관광개발의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다분히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있는 그대로의 관광자원을 보존, 정비하는 것과 기존의 관광자원에만 인간의 노력과 인공적 수단을 가하여 관광적 가치를 높이고 재창조하는 것, 그리고 관광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광공간 및 대상을 창조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관광자원 개발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와 그 지역과 자원의 지리적, 역사적, 민속적, 사회적 배경을 폭 넓게 이해함으로써 관광개발의 범위와 시장규모, 개발유형²⁾ 등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계획 및 영향에 대한 지리학적인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대부분 관광개발의 실태와 구조분석, 개발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보존, 개발방향, 영향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urkart and Medlik(1987)은 관광개발이 개발의 지역적 수준과 관광시장의 규모와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관광개발의 지역수준을 지방, 중간, 준지역, 지역, 전국수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権幸雄(1966)은 일찍이 대도시의 관광문제에 착안하여 요코하마를 사례지역으로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정비와 도시민의 건전한 이용을 전제하여 복지 우선의 지역계획 가운데 관광개발의 방법론을 강조한 바 있으며, 有末武夫(1974)는 관광개발에 따른 산촌지역의 변화연구에서 관광개발이 산촌의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산촌의 사회구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관광객의 주거지로부터 목적지까지를 관광행동권으로 볼 때 특정한 관광목적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유치되는 지역을 관광유치권이라 하였다. 이를 기초로 관광유치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여 레크리에이션의 권역을 크게 도시권, 근교권, 광역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金炳文(1977)이 백암온천의 지역분석과 온천관광산업의 발달을 살펴 온천관광객의 공간적,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관광온천지로서 울진군의 개발과 군전역의 관광공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조건 개선과 근대적 遊樂 서비스 시설의 투입을 제시하였다. 金相勳(1977; 1978)은 관광개발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을 강조하였으며, 관광지 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의 방법에 따라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관광동굴과 주변 관광지와의 루트형성으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므로써 바람직한 개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金鐘根 · 朴慶壽(1984)은 수도권 주변 관광지 가운데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주변 지역의

관광실태 조사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기능 일부를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으로의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權容友 등(1987)은 서울 주민의 수도권으로의 이주와 함께 수도권에서 옥외 여가활동 공간이 확장되고 있으며, 자가용의 보급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인접지역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골프장 및 종합휴양시설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林漢洙(1988)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관광공간 조정에 대한 연구에서 한반도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공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비한 관광루트의 재조정, 관광시설의 확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관광개발의 대안으로 관광부 또는 관광청의 설치, 세계적인 관광단지 유치, 비무장지대에 가칭 통일시 내지 평화시 건설, 관광상품의 전문화, 다양화, 고급화 등 10개항을 제시하였다. 金淑賢(1991)은 도시공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내에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수도권 중심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구에 비례한 관광개발에 있어 다소 불균형적인 수도권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수도권 관광행정에 보다 체계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파급 효과 및 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해 왔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Archer(1973)는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우선 긍정적인 면은 소득증대, 관광산업의 승수효과, 고용창출, 지가상승, 세원확대, 신경영기술과 경영방식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고 부정적인 면으로 고용의 불안정성, 교통혼잡, 자본투자의 낮은 회수율, 사회적 비용증가 등을 지적하였다. 金思憲(1985)은 Archer의 견해를 받아 들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역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지역간 불균형시정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의 유발, 지가상승, 수입성향 증가, 대외종속의 가속화

등을 부가하고 있다. 孫大鉉(1990)은 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을 강조하면서 관광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환경의 질적 보전을 포함한 질적인 접근이어야 하며, 둘째, 환경과 인간간의 균형개발로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개발의 지역통제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야 하며, 넷째, 사회생태적 폐해를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관광제품과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연합과 공간적 집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상대적 낙후지역의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은 크게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영향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시장경제론에 입각하여 관광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 등 관광승수효과³⁾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관광객의 직접적인 지출로 인한 소득증대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보다는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 평균소득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분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申惠卿(1980)은 영동지역의 관광자원과 관광객, 관광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 인구, 산업구조, 지가의 변화 등을 고찰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개발의 대안으로 교통시설, 관광시설, 관광자원 보호, 관광루트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沈相桃(1986)는 제주도 원주민 지역사회에 미치는 관광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 영향으로 제주시 발전, 외부인에 대한 이해, 향토에 고취 등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교육환경의 악화, 풍기문란, 전통가치관의 약화, 전통문화의 상실 등을 제시하였다. 金芙聲(1987)은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쇄신의 개념을 기초로 두가지 여가시설-정구장과 승마장-이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산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韓東孝·金永聲(1987)은 수도권 주변 천마산 스키장과 포천 스키장을 사례로 관광개발로 인한 소득, 고용, 지가변화, 인구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관광의 영향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인 인

식을 밝혔다. 丁碩重(1987)은 강릉시를 사례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소득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金炳文(1988)은 속초시를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에서 관광의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통계자료를 기초로 이를 분석하였다. 金正坪(1989)은 새만금지구 관광자원 개발이 해양관광개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 학제적 접근법의 도입, 국민관광지로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간석지를 이용한 해양관광개발은 무한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金料哲(1990)은 백암온천을 사례로 관광지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지역단위의 관광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관광소득 승수모형 가운데 비정통소득승수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소득화 과정과 경제적 편익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장기적, 종합적, 심층적인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金榮亮(1991)는 관광지화가 주변 농촌지역과 주민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장흥, 대성리, 용평 관광지를 사례로 관광지의 특성과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의 차이가 관광지 주변 농촌지역에 작용되어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밝히고 이에 따른 관광지 주민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明那恩(1993)은 한탄강 관광지가 연천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관광지의 특성, 관광객의 행태, 그리고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관광의 영향을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관광관련 상가주민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5. 結 論

오늘날 관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즉 가처분 소득의 증대, 노동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교통발달, 국제교류 증진 등 국내외적인 관광환경의 변화는 관광계층의 확대 뿐 아니라

관광참여의 기회, 거리, 비용, 관광자원의 이용 등 다방면에서 놀랄만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수요팽창에 비하여 관광의 질적 환경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관광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기틀의 구축은 관광연구의 출발점이자 전반적으로 관광환경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욕구유발과 동기충족의 대상으로서 또한 관광건인력을 가지는 목적물로서 관광현상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특히 현대는 관광자원의 범위와 이용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자연자원은 물론 인문자원과 인공적인 창조물이 주요한 관광대상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광자원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으나 많은 연구에서 개념상의 혼란과 범위설정 기준의 모호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관광자원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초로 이해하고 관찰하는 현장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연구와 전문적인 해석,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

관광자원은 관광지역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지표공간의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지금까지 관광지리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관광자원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그 동향을 주제별로 검토하여 관광자원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인 연구동향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우선 지금까지 관광지리학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주제로 관광자원의 유형화에 대한 접근이다. 이것은 내용상 관광자원의 개념과 범위설정 등을 기초한 개념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와 관광자원의 지역적 분포특성에 근거한 공간적 유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는 관광자원의 개념적 혼란과

유형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관광자원의 개념과 내용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주지할 때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관광지와와의 결합관계 및 구조변화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관광현상을 유발시키고 관광목적지를 결정하는 배경으로서 관광자원에 대한 개인의 인지, 선호, 해석에 대한 접근이다. 이 주제는 대부분 행태론적 연구와 공간인식론을 기초로 출발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관광객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때 관광지리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행태론적 연구는 개인의 관광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인간의 행태와 관광공간의 다양한 인자를 몇 개의 변수를 기초로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행태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의 채택과 변수의 객관성 및 이론적인 유의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지를 통한 관광의 만족도는 다음 관광동기 유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지리학적인 시각에서 보다 쉽고 체계적인 관광자원의 해석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오늘날 세계적으로 관광의 경제적 효용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그에 따른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관광자원은 관광의 산업화, 경제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관광지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개발의 일부분으로 지역구조 변화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개발은 경제적 편익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편익과 조화를 이룰 때 개발의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의 설정과 관광자원에 대한 상세한 목록의 작성, 개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및 영향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에서 나타난 특징은 연구의 공간

적 범위가 세분화되고 내용적으로 전문화,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분석방법면에서 구체적인 자료의 이용과 계량적, 분석적 틀을 기초한 실증적인 연구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投稿 1994년 6월 11일)

註

- 1) Ishii(1979)는 관광지의 기능과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광형태, 숙박시설, 체제인수, 관광빈도, 사회구조, 경제적가치, 계절성, 인구규모, 토지소유구조 등이 지표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관광지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Defert(1960), 山村順次·淺香幸雄(1974), 金炳文(1986) 등을 참조할 것.
- 2) 자세한 내용은 李長春(1983), 金太永(1988), 李根(1990) 등을 참조할 것.
- 3) 관광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유발효과(indirect effect)로 대별되며, 이 가운데 직접효과에 대한 총발생 효과의 비율을 승수라 한다. 따라서 승수효과란 특정지역 경제에 가져온 최초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 경제에 가져온 배수만큼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광승수는 승수산출과정에서 분모의 차이에 따라 정통 소득승수와 비정통 소득승수로 나누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정통소득승수} = \frac{\text{직접소득효과} + \text{간접소득효과} + \text{유발소득효과}}{\text{직접소득효과}}$$

$$\text{비정통소득승수} = \frac{\text{직접소득효과} + \text{간접소득효과} + \text{유발소득효과}}{\text{관광객의 최초지출}}$$

자세한 내용은 Archer(1982), 金料哲(1991)을 참조할 것.

文 獻

姜大玄, 1963, “智異山 觀光地의 開發”, 國土開發, 1, 679-706.
 권동희, 1991, “地形의 觀光地理學的 利用-山岳, 河川地形을 중심으로”, 觀光地理學, 創刊號, 183-208.
 權容友의 3인, 1987, “서울住民의 京畿道 指向 移住가 首都圈 地域變化에 미치는 影響”, 應

用地理, 10, 1-181.
 金料哲, 1990, 觀光地開發의 經濟的 波及效果 分析: 白岩溫泉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炳文, 1977, “白岩溫泉 觀光地의 地域分析과 開發”, 觀光學, 1, 觀光學會, 33-52.
 _____, 1988, “觀光開發이 地域住民에 미치는 社會·經濟的 影響: 束草市의 경우”, 觀光學研究, 12, 5-31.
 _____, 1990, 觀光資源學, 白山出版社.
 Kim, Boo-Sung, 1987, “Die Bedeutung von Innovationsprozessen für sozialgeographische Strukturen im Freizeitraum”, MSSW, 32, Institut für Wirtschaftsgeographie der Universität München.
 金思永, 1991, “國土空間 變化에 따른 觀光地 特化 및 觀光資源 開發方案”, 觀光地理學, 創刊號, 209-232.
 金思憲, 1983, “觀光開發과 地域經濟 便益分析: 觀光乘數 概念의 適用을 통하여”, 觀光學研究, 6, 40-43.
 金相勳, 1977, “大清 Dam 建設에 따른 觀光開發研究”, 觀光學, 1, 17-31.
 _____, 1978, “우리나라 觀光洞窟의 觀光과 그 開發에 대한 研究”, 觀光學, 2, 39-56.
 _____, 1985, 韓國 溫泉觀光地의 形成過程과 機能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金善姬, 1988, 太白市의 定住生活圈 開發方向에 關한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_____, 1993, “觀光과 地理學”, 韓國地理教育學會報, 17, 1-4.
 金成基, 1988, 觀光資源論: 理論과 實際, 鹿苑出版社.
 金松美, 1991, “消費者的 空間選擇에 關한 研究動向”, 地理學, 26(2), 188-193.
 金淑賢, 1991, 首都圈 觀光地 開發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榮亮, 1991, 觀光地化가 周邊 農村地域과 住民意識에 미친 影響: 長興, 大成里, 龍平觀光地의 事例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在寬, 1989, 嶺南圈의 觀光地域 構造에 關한

-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金正培·鄭承鎰, 1984, 韓國 觀光資源論, 螢雪出版社.
- 金鐘垠·朴慶壽, 1984, “首都圈 奉邊 觀光地 開發에 관한 地理學의 研究: 京畿道地域을 중심으로”, 地理學研究, 9, 391-417.
- 金太永, 1988, 現代 觀光學 概論, 白山出版社.
- 金洪雲, 1986, 觀光韓國地理, 螢雪出版社.
- 明那恩, 1993, 漢灘江 觀光地가 漣川地域 變化에 미치는 影響, 誠信女子大學 碩士學位論文.
- 朴宣姬, 1987, 觀光資源의 管理를 위한 景觀分析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朴宣姬·秦熙成, 1985, “觀光地 自然資源과 文化資源의 觀光 Image 및 視覺的 選好에 관한 研究”, 觀光學研究, 9, 65-97.
- 孫大鉉, 1989, 觀光論: 觀光과 文化行動, 日新社.
- _____, 1990, “觀光開發·環境·마케팅의 연결고리”, 觀光研究論叢, 2, 漢陽大 觀光研究所, 30-31.
- 孫大鉉·張秉權, 1991, 餘暇觀光心理學, 白山出版社.
- 申惠卿, 1980, “嶺東地域의 觀光資源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 研究, 5, 372-409.
- 沈相桃, 1986, 觀光現象이 原住民 地域社會에 미치는 社會文化的 影響: 濟州道를 중심으로, 京畿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吳南三, 1991, 觀光地 住民의 觀光行態에 관한 研究: 西歸浦市를 事例地域으로 하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元學喜, 1984, “水安堡 溫泉觀光聚落의 形成과 構造”, 地理學研究, 9, 419-431.
- 尹吉鎮, 1990, 國立公園 觀光地에 대한 認知와 選好에 관한 分析的 研究,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 根, 1990, 觀光資源論, 學文社.
- 李長春, 1983, 觀光資源論, 大旺社.
- 임승빈, 1988, 환경심리 행태론, 보성문화사.
- 林漢洙, 1988, “韓國의 國際觀光資源 開發戰略에 관한 研究”, 應用地理, 誠信女子大學校 韓國地理研究所, 11, 1-66.
- _____, 1992, 觀光地理: 韓國篇, 白山出版社.
- 전경수 편, 1987, 관광과 문화-관광인류학의 이론과 실제, 까치, 서울.
- 丁碩重, 1987, “觀光産業이 地域社會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考察-江陵市를 중심으로”, 地域開發研究, 4, 關東大學校 觀光開發研究所, 36-77.
- 鄭泰鴻의 3인, 1993 韓國의 自然觀光, 白山出版社.
- 趙松彬, 1991, 新稿觀光學 總說, 螢雪出版社.
- 차복재, 1982, 관광개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 河憲國의 3인, 1991 “慶州國立公園의 觀光地 景觀 選好에 관한 研究”, 觀光學研究, 15, 225-232.
- 韓東孝·金永聲, 1987, “스포츠 위락시설의 立地가 周邊地域에 미치는 影響”, 상명지리, 5, 1-30.
- 韓炳善, 1990, “溫泉觀光地에 대한 選好行態와 類型分類에 관한 研究”, 장안지리, 5(10), 1-68.
- 黃昌潤, 1992, 韓國 觀光地의 構造的 特性和 利用體系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津田昇, 1969, 國際觀光論, 東洋經濟新聞社, 東京.
- 伊藤郷平, 1973, “日本の觀光産業の基盤”, 地理, 古今書院, 東京. 18(3), 9-14,
- 山村順次·淺香幸雄, 1974, 觀光地理學, 大明堂, 東京.
- 木內信藏, 1942, “溫泉聚落의 分類試案”, 地理學 評論, 18(7), 279-281.
- 野本晃史, 1962, “觀光客流動圈의 形態からみた 觀光의 類型とその分布”, 人文地理, 14(4), 54-68.
- 有末武夫, 1970, 交通地理學: 觀光開發의 地域分析, 大明堂, 東京.
- _____, 1974, “山村における觀光開發と交通”, 人文社會科學編, 24, 110-119.
- 梶幸雄, 1966, “橫濱市における觀光問題”, 經濟と貿易, 90, 68-76.
- 鈴木忠義, 1974, 現代觀光論, 有斐閣, 東京.

- Archer, B., 1973, *The Impact of Domestic Tourism*, University of Wales Press.
- Archer, B., 1982, The Value of Multiplie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 *Tourism Management*, 3, 4-6.
- Burkart, A.J. and Medlik, S., 1987,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Heinemann, London.
- Clawson, M., Held, R. and Stoddard, C., 1969, *Land for the Futur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New York.
- Davis, W.K., 1967, Centrality and the Central Place Hierarchy, *Urban Studies*, 4, 61-79.
- Defert, P., 1960, Introduction a Une Geographie Touristique et Thermale de l'Europe, *Acta geographica*, 36, 4-11.
- Emrys, J. and John, E., 1977, *An Introduction to Socia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Gearing, C.E., Sward, W.W. and Var, T., 1974, Establishing a Measure of Touristic Attractivenes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2(4), 1-8.
- Gunn, C.A., 1978, *Tourism Planning*, Crane Russak, New York.
- Ishii, H., 1979, The Trend of Geographical Studies on Recreation and Tourism in West Germany, *Institute of Geoscience*, 11, The Univ. of Tsukuba, 156-158.
- Leiper, N., 1991, The Framework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1-44.
- Mayo, E.J., 1975, Tourism and National Park: A Psychographic and Attitudinal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14(4), 534-549.
- Mayo, E.J. and Jarvis, L.P.,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Effective Marketing and Selling of Travel Services*, CBI, Boston.
- McIntyre, N., 1989, The Personal Meaning of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2), 167-179.
- Mill, R.C. and Morrison, A.M., 1985, *The Tourism System*,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Pearce, D., 1987,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Peach, W.N. and Constantin, J.A., 1972, *Zimmerman's World Resources and Industries*, Harper & Row, New York.
- Robinson, H., 1975, *A Geography of Tourism*, Macdonald & Evans, London.
- Rosenberg, M.J. et al., 1960,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Smith, S.L.J., 1983, *Recreation Geography*, Longman, London.
- Smith, S.L.J., 1987, Regional Analysis of Tourism Resour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2), 254-273.
- Smith, S.L.J., 1989, *Tourism Analysis*, Longman, New York.

Geographical Research Trends on Tourism Resources

Yongwoo Kwon* and Sunhee Kim**

Summary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tudies of tourism resources, by review the research trends of tourism resources in the geography field. The geographical approaches to tourism resources can be subdivided into 3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ubject.

First, the classification of tourism resource types and the approach on the spatial distribution may be enumerated. This subject has been the object of the most interest and discussion to the geographers for tourism up to now. And from the viewpoint of contents, it has been developed by classifying the types of tourism resources, which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ange and standard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spatial classification of types based on the distribution feature of the area.

Second, the approach about cognition, preference and interpretation on the tourism resources as the background to induce tourism phenomenon and decide the tourism destination. Judging from the fact that most of this subject is starting from the behavioural study and that the right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ourism resource is the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preference degree of tourists, we have to have much interest about the field of tourism geography.

Third,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which is showing the active study recently and its influence and effect attendant upon it may be enumerated. Today, as the economic value of tourism is become important internationally, tourism resources ar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factor to induce the industrialization of tourism. And in the series of analytical studies related to it the interes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economic benefit analysis attendant upon tourism development including tourism resource and to the cultural, educational,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 etc.

As the result of composite examination, for the geographical studies about tourism resources, the spatial scale and the contents are being subdivided and specialized. And in the side of subject and method of study, it is developing into the positive study based on the concrete data and the measuring and analytical frame.

Key Words: tourism resource, travel needs, tourist behaviour, spatial preference, travel motiv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